

(...페이지에 이어)
“우리는 주민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을 다른 주와 비슷하게 낮출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계속해서 모색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알버타의 소득세 감소에 부채는 내년 3월까지 996억 달러, 1인당 22,400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주에서 17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알버타의 실업률은 회계 연도 평균 11.6%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지출은 이전 예상에서 약 573 억 달러에서 증가한 62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코로나-19 전염병에 대응하여 주민, 기업 및 지방 자치 단체를 위한 공

중 보건 지원 및 구호 조치에 대한 정부 지출 때문이었다.

알버타 주 정부는 코로나-19 대처하기 초기 39 억 달러에 달하는 의료 자금을 지출한데 이어 최근 또다시 5 억 달러를 추가로 제공했다. 주정부는 더 이상의 지출을 할 여력이 없는 상태이다.

정부는 또한 올해 자본 지출 계획에 14 억 달러를 추가했으며 인프라 프로젝트에 거의 100억 달러 를 지출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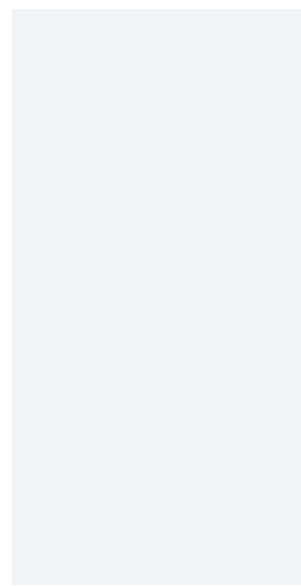
토우스장관은 주 경제가 내년에 4.6 %의 부분 반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회복의 길은 느리고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용도 2021년 이후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 GDP 비율은 최소 2022년까지 2019년 수준을 넘어 설 가능성이 낮다.

그는 또 공중 보건 조치가 점차 해제됨에 따라 경제 활동이 개선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전염병이 어떻게 전개되는 지에 따라 회복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각한 2차 감염의 물결은 추가적인 공중 보건 조치를 의미하고 세계 경제와 유가의 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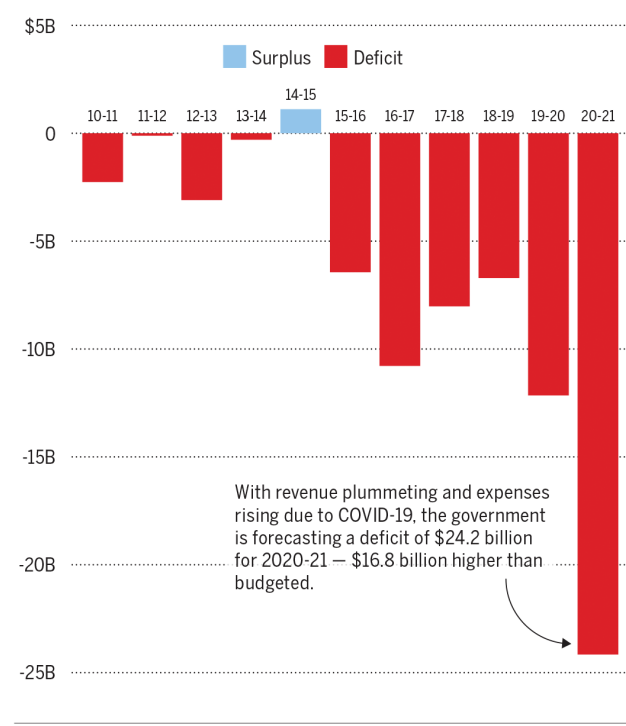
알버타가 세수와 예산의 불확실성을 처리하기 위해 수익 구조를 재평가 할 수 있는 지 묻는 질문에 토우스는 장

기적으로 “알버타 인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토우스장관은 알버타가 다른 주처럼 주소비세를 올릴 계획도 있느냐는 질문도 받았다.



DEFICITS, WITH NO END IN SIGHT

The last time Alberta saw a surplus was in 2014-15, when Alison Redford was ending her brief tenure as premier. On Thursday, Finance Minister Travis Toews said he couldn't predict when the province's books will be balanced.



SOURCE: ALBERTA FINANCE DARREN FRANCEY / POSTMEDIA

“BC 집값 올해 말까지 7.7% 오른다”

BCREA, 2020-21년 BC 주택경기 전망
올초 부진 딛고 하반기 거래-가격 반등 부상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택 경기 침체를 지속해온 BC주 주택시장이 하반기부터 뚜렷한 회복 조짐을 보일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BC부동산협회(BCREA)가 25일 공개한 3분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BC 지역 주택 거래량과 가격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반등세를 타면서 크게 급등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올해 거래량이 지난해(7만7351건) 대비 6.5% 증가해 총 8만2380건의 판매량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21년 거래량은 17.6% 급증하여 9만6860건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경제 회복과 낮은 모기지 금리로 인해 부동산 시



장의 수요가 촉진되면서 주택 거래와 가격이 동시에 상승할 것이라 분석이다.

이에 따르면, BC주 주택 가격 역시 2020년 말까지 평균 7.7%, 2021년부터 평균 3.7% 오를 것으로 예상

된다.

광역 밴쿠버의 경우도 평균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5.9% 오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2021년에는 이 지역 평균 가격이 2.4%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또, 프레지저

밸리 지역의 경우 평균 주택 가격은 올해 6.7%, 내년에 2.6%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 6월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가 내놓은 부동산 전망과는 궤를

달리한다. CMHC는 향후 1년 동안 전국의 평균 주택 가격이 9%에서 18% 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CMHC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택 가격은 경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과 2차 팬

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점차 낮아질 것이라 평가다.

그러나 BCREA의 브레드 오그먼드슨 경제전문가는 “최근 주택시장의 자료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회복을 보이고 있다”며 “기록적으로 낮은 모기지 금리와 경기 회복에 힘입어 2021년까지 주택 매매가 이러한 상승 모멘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최근 전국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주택 시장은 거래량 부문에서 총 6만2355채를 매매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주택 매매는 지난해 대비 25% 늘어났으며, 가격은 14% 가량 급등했다. 이는 40년 이래 역대 월간 기준으로 거래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지만, 일시적인 반등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밴쿠버 중개인 매물 집 정원서 과일 싹쓸이

집 주인, “처음 한두 개, 나중엔 봉지째”

중개인, “별 뜻 없이 한 일” 인정 사과

메트로 밴쿠버의 한 부동산중개인이 매물로 나온 집 정원의 과일을 주인의 허락도 없이 모조리 따가는 사건이 벌어졌다. CCTV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한 집주인은 경악한 나머지 현재 관련 부동산협회에 불만을 진정해 놓은 상태다.

집주인 질 첸(Jill Chan)씨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2일 럭스모어 리어티(Luxmore Realty) 소속 부동산중개인 피터 양(Peter Yang)씨가 자신이 대리하

는 구매자 2명을 데려와 집을 보여준 뒤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첸 씨는 “처음에는 과일 나무에서 한두 개를 따먹더니 욕심스럽게도 차로 가서 비닐봉지를 가져와 정원에 남아있는 과일을 전부 쓸어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첸 씨는 또 그 중개인이 집을 보는 구매자에게까지 권유, 그중 일부가 과일을 따 먹고 난 뒤 씨를 정원에 뿌려놓고 가기까지 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 정원에는 배나무 한 그루와 베리 관목 여러 그루 등이 있는데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심으신 것으로 내

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

첸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안 직후 경찰에 처음 신고했으나 도난품의 가치가 미비한 관계로 경찰이 개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는 이어 광역밴쿠버 부동산협회와 럭스모어 리어티에 항의를 진정, 당사자인 양 씨와 회사 대표로부터 사과를 얻어냈다.

양 씨는 회사 대표의 입을 통해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이라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첸 씨에 따르면 이 중개인은 사건이 커지자 가져간 과일 봉지를 첸 씨의 집 현관에 몰래 가져다 두기까지 했다.

92년 전통 켄싱턴 플라자 극장 폐업



켄싱턴의 상징적인 플라자 극장은 문을 닫는다. 극장 소유주는 영화관으로 계속 운영 할 누군가에게 임대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소유주 마이크 브라씨는 92년 역사를 지닌 극장 운영을

마감하기로 결정했다. 이 극장은 1928년 차고로 시작하여 1935년 영화관이 되었다. 브라씨가 이후 사업을 소유해왔다. 그는 1977년에 에드먼턴의 프린세스 극장을 세웠다.

브라씨의 아들인 TJ는 “적어도 3 ~ 4년 더 계속할 계획이었었지만 코로나바

이러스 사태를 맞아 아버지가 조기 폐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플라자는 지난 일요일까지 상영을 열었고 월요일에 문을 닫았다. 브라씨는 예술 그룹이나 다른 조직이 그 자리를 임대하고 계속 운영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Advertisement for YOU & EYE OPTICAL featuring Dr. Martin Kwon, contact info: 2984 Ellwood Drive SW Edmonton (780) 440-2239.

Advertisement for 기경력 마사지 (Young Kim, RMT, Doctor of TCM), contact info: 72 Arbour Crest Dr. NW Calgary.

Advertisement for STAMPEDE 한인약국, contact info: 19,3616-52 Ave NW (코리아나마켓 옆).

Advertisement for 알버타 인술 39년 (Dr. Wan Mo Chung), contact info: 304, 11044-51 Avenue, Edmonton.

Advertisement for Koryo Optical, contact info: 1324 10 Avenue SW, Calgary.

Advertisement for ACUSPORTS PAIN-REHABILITATION-CLINIC, contact info: 5920 Madeod Trail SW Calgary.